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을 좇아가지 말라,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9월 29일)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비대면 일상화 시대 '포교 플랫폼' 뜬다

월정사, 사찰 첫 온라인방송국 개국 '눈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코로나19 대유행은 '비대면' 이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정착시켰다. 이는 종교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불교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방역에 집중하며, 유튜브 법회 · 예불 등을 열며 적응해나갔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위드 코로나' 의 상황이다. 점진적 일상으로 전환이 이뤄지지만, 비대면에 적응된 신도들이 법회로 빠르게 돌아올 것으로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불교계는 기존의 대면 신행과 새로운 비대면 신행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비대면' 이 일상이 된 시대에 오대산 산중사찰인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가 최근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 '비대면 플랫폼' 들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정사는 "비대면 사회 속 불법홍포를 위해 전국 사찰 최초로 온라인 방송국인 'OWBN (Odaesan Woljeongsa Broadcasting Network, www.owbn.co.kr)' 을 개국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월 25일 밝혔다.

월정사의 온라인 방송국 'OWBN' 은 현재 월정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하고 있는 사시불공, 〈금강경〉 지도, 참선 등의 콘텐츠를 한 곳에서 시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월정사에서 봉행되는 각종 법회와 스님 법문 영상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OWBN' 은 사중 스님과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일방적 정보의 방식이 아닌 소통 · 참여형 공간을 마련해 비대면 사회 속에서도 사찰과 소통하고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월정사의 목표가 그대로 담겨 있다.

사찰 불전함 보시와 기도 · 법회 운영도 'OWBN' 에 탑재된다. 현재 월정사는 온라인에 마련된 불전함에 기부하거나, 사찰 기도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김보훈 월정사 데이터센터 팀장은 "월정사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과 신행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준비해왔다. 1차적으로 온라인 방송국을 대중에 선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월정사의 '비대면 플랫폼' 은 온라인 방송국만이 아니다. 월정사는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을 개발해 지난 8월 12일 열린 강원도 세계청소년명상주간에서 처음 선보였다. 10월 8일 개막한 오대산 문화축전에서는 학생 백일장 등의 행사와 월정사 화엄선문화연구소 제1회 국제명상세미나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월정사는 사이버 추모관인 '온라인 수목장(가제)' 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나 망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비대면 플랫폼 구축 잇달아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 선뵈
사이버 추모관도 개발 착수
"'수행+신행+제례' 플랫폼들
유기적 연계로 新신행 선도"

김보훈 팀장은 "올해 초 선보였던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과 온라인 수목장 플랫폼은 현재 버전업 과정과 개발 중에 있다"면서 "해당 플랫폼들이 완성되면 월정사에서 이뤄지는 기도와 법회, 참선, 제례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상과 법회 · 신행, 제례로 이어지는 세 가지 플랫폼은 향후 유기적으로 연동되며, 이를 통해 신도 개개인이 온라인에서 스스로의 수행과 신행을 점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이제는 대면 신행활동과 비대면 신행활동이 함께 가야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부처님과 선지식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수행하고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가정이나 일터 등 각자의 공간에서 오대산 월정사 플랫폼과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No.1' 사찰음식 셰프는 누구? 수원 봉녕사가 10월 28일 경내에서 개최한 제12차 사찰음식대향연서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사진 왼쪽 첫번째)을 비롯해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적연 스님,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 스님, 봉녕사승가대학장 의천 스님 등 심사위원 스님들이 출품작을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만에 열린 사찰음식대향연서는 '치유와 힐링' 을 주제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면역강화 사찰음식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대중에게 선보였다. 〈현장 기사 5면〉
수원=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내년도 예산안 승인…종법 제 · 개정안만 15건

조계종 제222회 중앙종회, 어떤 안건 다루나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다룰 조계종 중앙종회 제222회 정기회가 11월 2일 15일간의 회기로 개원한다. 이번 정기회에 발의된 종법 제 · 개정안은 15건이며, 초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선출의 건 등 인사안건도 7건이 예정돼 주목된다.

조계종 제222회 중앙종회(의장 정문스님)는 10월 28일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이번회기 의안들을 검토했다.

접수 의안은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법계법', '승려법', '계단법', '호계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진 스님이 대표발의한 '제적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무원법' 개정안과 도심 스님이 대표발의한 '승려법' 개정안, 법원 스님이 대표발의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법)' 외 6건, 총무원장 발의안인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총 15건이다.

이 중 법원 스님이 대표발의한 7건의 의안은 모두 미등록법인의 도제들에 대한 권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법' 에 따른 연계법안으로, 미등록법인 및 사설사암의 권리인, 임직원, 관리인과 도제까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도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법인법' 의 경우 이번 회기에서는 총무원장 발의로, 종단에 등록된 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빚을 경우 총무원이 조사하고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총무원장은 종단등록법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종단 위상을 실추시키는 경우 조사를 시행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1개월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종단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의 신설규정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법인 도제에 대한 권리제한 완화와 등록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한회기에 접수 · 논의됨에 따라 입법 방향성이 서로 상충하거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11월 2일 개회…15일 회기
'재적본사전적특별법' 주목
미등록법인 도제 권리 등
'법인법' 개정안에도 관심
대종사 자격 완화 '법계법'
호계 · 법규위원 인사안도

이밖에 출가 시 등록한 재적본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재적본사전적특별법' 제정안과 대종사 · 명사 품서 자격을 완화한 '법계법', 승탑을 사미 · 사미니계 수계일로 기산토록 변경하는 '승려법'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사안건은 초심호계위원 법성 스님과 법규위원 도호 스님의 임기가 11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 성곡 스님이 11월 22일, 소청심사위원 보경 스님이 11월 12일 임기 만료됨에 따라 후임위원 선출의 건이 접수됐다.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과 호법부장 서리 현민 스님의 호법부장 임명동의의 건도 다룬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중앙종무기관의 살림살이를 꾸려갈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한다. 총무원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38억여원이 감소한 855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40% 증액된 279억여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6.79% 감소한 576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선사찰의 고충을 분담하기 위한 조치로, 2022년 예산안은 동결 수준에서 증액부담을 낮추는 수준에서 편성했다"며 "특히 일반회계 예산안 책정에 있어서 내년도 종정추대식과 통합종단 60주년 기념식, 총무원장 선거로 인한 퇴임 · 취임식 등 반드시 필요한 행사계획안을 반영하면서도 최대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222회 정기회에서 심의 ·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삼보사찰 방장스님의
감로법문에 큰 힘을 얻었으며,
교구본사 주지스님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삼보사찰 순례, 부처님 성지 참배하며 가르침 새기는 수승한 공부"
불지종찰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대종사 법어

"걸음걸음에 정성 다하고 깨어있다면 천리순례는 최고 수행"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 법어

"삼보사찰 천리순례, 힘든 시기 국민 불자들에게 희망 용기 줄 것"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대종사 법어


